

## 오직 믿음으로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일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 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아구를 막으며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악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개역, 다니엘 6:1~18]

**저**는 오늘 하루가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멋모르고 두 번은 용감하게 왔었는데 전도사로 부임해서 오늘 새벽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니 그만 겁이 나는지 갑자기 말도 잘 안 되네요. 제가 원래 이 교회 있었다라면 아마 이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이리로 오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 갑자기 더 떨리는 게 오늘은 좀 헤멜 것 같습니다.

본문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다니엘서 6장을 끝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 아마 다 읽으면 너무 길다고 야단을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욕심의 절반을 줄인 겁니다. 그래도 길지요? 길다는 느낌은 들지만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다니엘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자랐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일테니 소개하기보다는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랑받기는 하지만, 포항 시내에서 고3이 주일날 학교도 안 가고 교회에서 성경공부한 경우는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매 맞는 것 정도는 정말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고 애들이 버티어 줬어요.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제철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까지는 잘 하다가 3학년 올라가서 “선생님, 3학년 때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은 아프지만 주일날 학교로 가겠습니다. 대신에 공부는 꾸준히 할테니까 교재는 매주 보내 주시고 자주 연락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도 가슴은 아팠지만 강요할 성질은 못되니까 “니 마음 내 안다. 공부는 꾸준히 하고 다시 나올 수 있는 날을 기다리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두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교회를 왔더라구요. “어떻게 왔니?” “학교 와서 공부한다고 제가 버티고 있어 왔는데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공부 이게 뭘데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교회는 제쳐놓고, 생각은 교회 가 있는데 공부해야 한다. 학교 선생님이 무섭고 부모 눈이 무서워서 이렇게 앉아있다?” 자신이 참 초라하더라입니다. 그래서 가방 들고 와 버렸다는 겁니다. “선생님께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맞으면 맞지요 뭐” 그리고 그 날 잘 있다가 학교 돌아가지도 않고 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또 왔어요. “지난 주 어떻게 되었니?” “학기 초에는 대개/심하게/ 야단치고 머라/PP중/하더니만 몇 달 지나니까 선생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가야겠다고 하니깐 선생님이 가라 하시던데요.”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그날 고3 전출이라고 파티를 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여러가지 닥쳐오는 어려움에 비하면 주일에 학교 가는 거는 결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부터, 거기서부터 우리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겠다 싶은 그런 바램을 담아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조금 길다 싶어도 사실은 성경 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긴 본문 그냥 갑니다.

저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바둑도 잘 뒀요. 그런데 경주로 전근 가서 이 년 동안 바둑 두는 것 보면서도 저걸 만지면 성경보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생기겠다 싶어서 손도 안 대고 옆으로 지나다니기만 했습니다. 고스톱도 잘 칩니다. 제 친구들이 들으면 웃겠지만요. 다만 성경공부 모임이 여러 개 있고 준비도 해야 하니 고스톱 치자고 전화하면 노는 것도 좋지만 이게 더 좋은 걸요. 준비할 것 다 하고 공부할 것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놀러 가는 거죠. 학부형이 저녁 먹자고 나와라, 나와라 하면 참 미워요. 집에 있을 날이 잘 없었으니 밥 사준다고 나오라 하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죠. 성경에 맛을 들여 놓으면요 다른 어떤 오락보다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본문이 조금 길지만 다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처지를 아마 옛날 일제시대하고 비교하면 좀 비슷할 겁니다. 원래 다니엘이 귀족집안의 자제였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창씨개명을 하는 거죠. 자기말 다 버리고 이름 다 갈아야 했고 먹는 음식조차 자기 마음대로 못먹는 겁니다. 음식을 마음대로 못먹는 거 그것 불행인지 혹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Home-stay란 말 있죠. 외국말 배우러 외국에 가면 외국인 가정에 하숙하듯이 생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한 달 정도 외국인 가정에서 지낸 어떤 분이 얼마나 한국 음식이 그리웠으면 어느 한국인이 대접한 라면 한 그릇을 보고 그렇게 울더라입니다. 라면 한 그릇 끓여놓은 것 보고요. 얼마나 그게 그럽고 먹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좀 까다롭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 먹고 싶은대로 못먹는 겁니다.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다니엘이라고 나왔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불렸거든요. 이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겠지요.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한 번 봅시다.

성경에 있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든지 흠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흠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성경의 훌륭한 사람들 중에 흠이 제일 많은 사람요?

다윗.

누구요? 다윗요? 꼭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고... 다윗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목욕하는 남의 부인을 몰래 보다가 빼앗은 사람. 또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요? 저는 베드로가 사실은 참 고맙습니다. 저도 저녁에 좀 빌빌하거든요. 저녁시간에 잘 자불어요 [잠들어요]. 그때마다 베드로를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성경에 자불었던 기록이 없다면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자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흠을 잡아 보면 다 잡혀요. 참 고맙습니다. 성경에 허물 투성이인 사람이 많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왜 안 불리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데이트를 하면 안됩니다. 왜요? 혹시 데이트 중에 강패 같은 것들한테 걸리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자기 애인도 버려두고 혼자 도망갈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다른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만약 남자가 이랬다면 어떡

하실래요? 하니까 대부분 “다시는 안 만나요.”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죠. “안 만나긴 왜 안 만나? 한번은 만나야지요.” “뭘할라구요?” “따지기보다는 뺄이라도 한번 날리고 안 만나야지요.” 성경의 등장 인물들을 이렇게 흠을 잡아 보면 다 흠이 잡히는데 다니엘은 안 잡혀요.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니엘의 위대한 점들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5장 28절부터 봅시다.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 나라’ 이 말은 오늘 나라를 뺏길거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요. 30절입니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욕심이 세웠더라’ 그래 놓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일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정권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서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정권이 바뀌어도 높은 자리에서 꿈쩍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요? 이권 정권이 바뀔 정도가 아닙니다. 왕이 바뀔 겁니다. 왕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총리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랬겠느냐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잡으려고 4절을 한번 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 함도 없고 아무 흠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니엘은 도저히 흠잡을 수가 없더라고 그랬죠. 이게 누가 봐서 흠을 못잡느냐. 친한 사람이 흠잡는 게 아니에요. 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보아도 흠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 좀 확실하게 하고 지나갑시다.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 속담 하나가 참 잘못됐어요. 속담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속담입니다. 뭐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렇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 말 진짜일까요? 그 말 때문에 사람이 뭘 좀 잘못해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자기 위로를 삼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드리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말고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고자 노력을 해야 하는데 괜히 이런 속담을 인용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래에 유명해진 E.LAN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믿음을 바탕으로 회사를 만들고 믿는 자답게 돈을 벌어보려고 시작했는데 세무서에 성실하게 신고를 하니까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그 말을 끝이 듣지 않고 매출액을 상향 조정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회사로서는 상당히 억울해요. 왜요? 정확하게 신고를 했는데도 으레껏 그러려니 하고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고치는데 3년이 걸렸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세금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난 후에야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죠. 크리스찬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성공한 경우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대요? 사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모범 케이스를 한번 보였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말할 때 감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여기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우리 중에는 털어도 먼지 안 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털어보니까 먼지가 한 군데 났습니다. 어디에 났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도무지 허물이 없는 다니엘을 털어봤더니 딱 한군데 먼지가 나더라? 5절 한번 보실까요?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했거든요. 이 사람을 고소하려면 딱 한가지가 있다. 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흠입니까? 먼지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먼지가 아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일한 먼지가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됩시다. “저 친구, 참 좋은 놈이야. 그런데 딱 한가지 흠이 예수쟁이라는 거야.” 혹시 그

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다 좋은데 저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되겠어.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말은 못 들어왔고 비슷한 말은 들어봤습니다. 나이 좀 드신 선생님들이 가끔 저보고 “저 놈 저거 멧쟁이야. 정말 마음에 들어. 저게 술만 먹으면 완벽한데.” 이러는 거예요. 학교일 잘 하고 퇴근하고 가서 한 잔 먹고 복새통을 떨어야 적성이 맞는데 장단도 잘 맞춰주고 술집까지 따라가서 뒷치닥거리까지 해주고 그래요. 술 안먹는 게 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마 다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말은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양보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양보 잘 하다가 한 군데 걸려서 못하는 겁니다. 뭘니까? 신앙문제가 걸려들면요 양보 못한다는 거죠.

전에 상도중학교에서 한 5년 반 근무를 했었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모여서 여행을 가요. 5년 동안 제가 안갔거든요. “요번 직원 여행간다 가자”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소도 상관없고 날짜도 상관없는데 요일만 말해도!” 하니까 “일요일이다” 이러죠. “그러면 나는 빠라” 그걸 5년간 했더니 마지막 해예요. “일요일은 무조건 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간다” 이래서 따라갔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과 여행 다니기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죠? 오고가는 차에서 술먹고 노래하는 것 빼고 뭐 있습니까? 좌우간 술먹고 부르는 노래는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불러야 되니까 분위기 깨는 노래하면서 갔지요.

가서 잠이나 잠니까? 1박 2일 갔다오면 몸살이 나고 피곤해 죽겠지만 한마디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주일만 아니면 갈게” 했으니까 그 노래를 5년 동안이나 불렀는데 그래서 날짜 바뀌었다는데 안 갈 수 없죠. 만사 제끼고 그 때는 가야 하는 겁니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서라도 가야 합니다. 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함께 가지 못했던 것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것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소한 것들을 전부 양보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신앙문제로만 욕을 먹어야 하는데 잘못해서 신앙으로도 욕을 먹고 이기적인 행동으로도 욕을 얻어먹으면 그건 큰 일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 걸려들면 죽음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느냐를 한번 생각하면서 10절부터 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죽지 않으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창문을 닫아버리면 되죠. 밖에 있는 놈들이 저게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보고 있는데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듣지 않아요. 어렵습니까? 참 쉬운 방법입니다. 혹시 뭐 또 다른 방법 있나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라고 되어있죠. 기도를 꼭 그 쪽보고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의자 위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리면 방향이 틀어지죠. 방향 틀면 안됩니까?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방향을 조금 틀거나 조금 장소만 옮겨버려도 될 텐데요. 또 없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횟수 좀 바꾸면 안되나요? 기도를 서서하면 안되나요? 자세? 바꿀 수 있잖아요. 참 쉬운데... 그것도 낮에 하지 말고 꼭 그러고 싶으면 밤에 하든지, 아니면 30일 기한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꼭 이런 식입니다. 30일 동안. 이것만 지나가면 괜찮습니다. 30일 동안 쉬면 안되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 방백들이 이런 모의를 해서 왕에게 권할 때 왕에게 이런 못된 법을 만들면 안됩니다라고 미리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적어도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왕의 신임을 받고 총리에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얘기를 해서 이런 못된 법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그런 방법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창문 닫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 아니요? 왜 다니엘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할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은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붙여놨는데 제가 이걸 붙이면서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설교 제목은 몇 백년 된 겁니다. 몇 백년된 제목을 붙여놔도 되겠나 싶어서요... 아이고, 내가

이 판에 새 것 헛 것 따지게 됐냐? 전국에서 제일 늙은 전도사 주제에... 오래된 제목 그냥 붙이자. 맞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생각에는 내가 출세하고 안 하고 하는 지금까지 온 과정이 자기가 잘 해서 출세한 것 아니에요. 총리까지 된 것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살고 죽고 하는 이 모든 문제는 너희들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가 출세하고 죽고 살고 하는 이 모든 문제가 너희들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다. 너희들 하고 싶은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 그 수고,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다니엘은 확실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걱정 하나 안 하구요.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 기도지요. 10절 끝에 보시면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있죠. 정말 여유작작이라고 해야 하나요?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주변에는 자신을 모함해서 죽일려고 꾀하는 사람들이 쏘아 달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한마디 외우고 있는 것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전국 SFC 수련회 표제였습니다. 이 구절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을 제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됩니까? 나와 관련된 과거, 현재, 미래,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려고 꾀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나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나 똑같죠. 신앙인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이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죽일려고 저렇게 꾀를 부리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그대봐라. 시편 기자식으로 하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러는 거죠.

워낙 대답을 잘 하시니까 퀴즈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멈출테니 뒷말을 이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게 하겠고’** 누구 말인지 대번에 아시겠죠?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을까요? 그 뒷 구절만 따로 떼내면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걸 연결해서 기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죽여서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게 하겠다’** 하고 큰소리를 쳤는데요. 바로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었습니까? 학생들의 복음송에 잘 나오는데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구절이 여기에 이어 나오는 구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사무엘상 17:47)’** 지금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그러나 승패는 나나 너한테 달린 문제가 아니고 이긴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상대가 안되는 싸움을 다윗이 거는 거죠. 조그마한 다윗이요 돌을 감아 돌리면서 막 뛰어 갔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싸울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적개심이라도 살아나야 싸우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내가 개냐?

맞습니다. 야 내가 개냐? 이놈아. 골리앗이 보기에는 싸움이 안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이긴 말도 안되는 싸움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고3 아이들에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입시전쟁도 전쟁이냐?” “예” “야, 그러면 입시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거냐?” “그럼요” “그러면 됐다. 난 너희들 더 가리킬 것 없다. 그래도 심심하니까 성경책 펴라” 하고 성경공부를 하곤 했죠. 그 애들이 그랬어요. 입시전쟁도 전쟁이면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입시전쟁을 하나님 방식으로 안 하고 주일에 학교 다 가는데요 뭐. 학교 가서는 또 가슴 아파서 공부도 잘 안되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고 딴짓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에서 몇 년 전에 참 좋은 표어 하나 만들어냈죠.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보다 조금 나쁜 게 무엇인지 알고? ‘내 탓이로소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고 하잖아요. 니 탓보다가는 내 탓이 참 좋은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요 니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이로소이다’ 하나님 탓하니까 꼭 나쁜 일 같다고요? 좋은 일까지 다 포함하는 말로 씁시다. 이웃 사람하고 싸우든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든지 이거 누가 그랬노? 왜 그랬노? 이게 아니고요. 아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라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합시다. 네 탓도 아니요 내 탓도 아니라, 천주교보다 한 수 올립시다. 하나님 탓이로소이다. 냄비를 태워 먹어도? (목사님 설교에 등장했던 냄비 얘기를 찾아 보세요)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14절부터 또 한 번 봅시다. 다니엘의 신앙은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4절부터 보면서 이 다니엘의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할 건지 한 번 봅시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라는 말은, 왕이 소위 말하면 자연작전을 쓰는 거죠.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없을까 해서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조금 미루었는데 그 다음요.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죠. 6:18절을 한 번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악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이 왕도 예수 믿었나봐요. 금식하게요. 그런 금식입니까? 아니죠. 다니엘의 신앙은 그럼 어떤 신앙이라고 할까요? 왕이 왜 이려고 있어요? 그냥 ‘취소’ 그러면 쉬웁텐데...

다니엘의 신앙은 왕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도 인정해주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믿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확실한 예수쟁이야.” 그런 소리 들어야 합니다. 맞죠? 그러면 평소에 예수 믿는 티를 좀 내야지요. 그리고 정말 모범이 될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다른 거는 다 좋운데 신앙문제만 딱 걸리면 방법이 없는 애야. 구제불능이야.” 이런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왕이 다니엘의 신앙을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다니엘의 이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겠고 특별히 자라나는 이 학생신앙 운동원들이 이런 신앙으로 자라나야 예수 믿는 재미를 이 땅에서 만끽할 수 있죠. 얼마나 재미있어요. 저 놈들이 나를 죽일려고 온통 감시를 하고 있는데 잘해봐라 그리고 나는 여전히 딴 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이 어려운 시기에 남들이야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느긋하게 지나갈 수가 있을 거란 얘깁니다.

SFC 헌신예배라고 특별히 제게 설교를 맡긴 것 같으니 SFC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왜 좋은 우리말 놔두고 자꾸 SFC하니까 조금 듣기가 거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식 우리 이름으로는 ‘학생신앙운동 Student For Christ’ 즉 예수를 위한 학생이라란 뜻입니다. 이걸 줄여서 SFC라고 부릅니다. 몇 가지 특징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나 기독교단체 중에 이 SFC가 유일한 순수 국산입니다. 다른 건 전부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이 SFC는 순 국산입니다.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도 대충은 얘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요번에 신대원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하게 신사참배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거기다가 일본의 천조대신을 분명히 올렸습니다. 전국교회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성경구절이나 그런 찬송가를 다 찢어냈답니다. 먹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일본에 천조대신이 있는 황궁에까지 참배를 간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하면 성지순례를 간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그 앞에서 자랑스럽게 기념촬영을 했는 이런 사진까지 공개가 지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목사님들이 송도 바닷가에 단체로 들어가서 우리가 세례 받듯이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미소이바라기를 행했던 사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일본 천황을 올려놓고 우상숭배를 한 무리가 대부분이었고 일부가 감옥에서 순교까지 해가면서 신앙을 지켰죠.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소수의 무리가 다수에게 밀렸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수의 무리가 정말 민족의

아픔을 견고 눈물과 회개로 지새우던 그때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본 아이들이 그 부모를 따라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모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SFC의 시초입니다.

그러면 모여서 뭐 할 거냐? 당연히 부모들이 하는 것 그대로 흉내를 내게 되는 거죠. 민족이 저질렀던 그 아픔에 대해서 철저한 눈물로 회개를 하고요 곧 이어 터졌던 6.25전쟁, 그 참상을 보면서 분단된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모였던 그 모임이 바로 이 SFC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이런 형편에 우리가 뭐 할 거냐? 참 약간 뜻밖일 것 같지만, 우리는 학생이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걸 1번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게 둘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봉사라고 정했는데 교회 가서 정말 작은 일, 사소한 일일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자. 이렇게 작심을 하면서 기도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다가 발전한 것이 수련회인데요.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된 과정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일년에 두 번씩 하는 수련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습니다. 가서 딱일 하나도 안 하고, 오직 공부와 말씀 배우는 일에만 몰두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보통 3박 4일 하나요? 그때는 6박 7일입니다. 주일을 끼워서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7박 8일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말이 쉬워서 6박 7일이지 어마어마한 수련회입니다. 그런 수련회를 한 스무 번쯤 갔거든요. 거기서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SFC는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수련회에 얹혔던 이야기를 하면 재미 있습니다. 6박 7일씩 해대니까 이들 사흘 잠 못자고 특히 일 맡은 사람들은 잠에 시달리다 완전히 초죽음 상태까지 갑니다. 진주 지방에 그해 수양회 표제가 '주의 숯불을 내 입술에' 이런 표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 표제를 따왔는데 그해 대회장 하던 분이 잠이 좀 많아서 잠 때문에 실수를 세 번이나 했답니다. 보통 수양회 마지막날 표제 제창을 하는데 이 분이 잠결에 '주의 입술을 내 입술에' 이랬거든요. 웬만하면 모르고 따라하는데 귀 밝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그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그 분이 예배 사회를 보다가 설교 전에 본문을 읽고는 '목사님 나올 때까지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해 놓고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냥 설교 하셨으면 별 일이 없었을 텐데 통성기도가 너무 오래간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툭툭 건드려 깨웠거든요. 사회를 보라고 손짓을 했나봐요. 그랬는데 이 분이 얼떨결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좌우간 예전에 전국에 퍼졌던 유명한 얘깁니다.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합니다. 워낙 강행군이었으니까요. 영국 선교사 한 분이 오셨다가 이젠 사람 잡는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죠. 이런 것들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배당에 다 의자를 놓는데 옛날에는 마루바닥 아닙니까? 교회 안에 가능하면 많이 들어오게 해야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이런 집회를 많이 하시니까 자리가 모자란다고 싶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 세워요. 다 세워놓고는 밖에 있는 분도 다 들어오세요. 제일 뒤에 앉으세요. 앞에서 앉으면 안돼요. 제일 뒤에 앉으세요. 그 앞에, 앞에, 이렇게 뒤에서부터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강대상 바닥)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강사 목사님도 발뽕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껑뻑 끼어 앉아서 수련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당 한가운데 있는 아이는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창가에 있는 아이는 추워서 떨고요 겨울이니까. 가운데서는 '야, 문 좀 열어도!' 하고 창가의 아이는 '춥다!' 하고 열었다 닫았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은혜로웠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려고 애썼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에 창조과학회가 세워지기도 전인 70년 대 초반에 벌써 창조과학을 가르치는 분이 계셨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해서 이 SFC가 한국교회에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길러 냈습니다. 지금 하는 수련회는 저희들 눈에는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고 합니다. 우리 집 꼬마가 하루는 '아빠, 이번 수련회 일자하고 학원의 개강 일자하고 겹쳤는데...' 첫날에는 학원에 갔으면 하는 눈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은표야, 학원 안 다녀도 괜찮고 필요하다면 학교 그만둬도 내 말 안 할게. 수련회는 가거라.'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요? 그 소중한 것들을 저는 그 수련회를 통해서 다 받았거든요. 공부 몇 자 더하는 거요? 거기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수련회가 부족한 것이 많다 싶어도 수련회 연락 오면 부지런히 보냅니다.

저도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지만 제가 78년도 겨울에 대구에서 전국수련회를 할 때 준비위원장과 부대 회장을 맡았어요. 수양회 도중에 보니까 임원들이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예배와 공부시간 중인데도 일에 바쁜 겁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아놓고 잔소리를 좀 했지요. “나는 지금 아무리 바빠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동안 20번 가까운 수련회를 뛰어다니면서 배운 것이 너무도 많아서 조금이라도 빛을 갠 마음이지만 대학에 갓 들어온 여러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임원으로 봉사하는 것은 고맙지만 자신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얼마가지 않아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될 지 모르니까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성숙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배와 공부 시간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나중에 그 때 그 잔소리가 참으로 고마웠다는 후배들의 인사를 많이 들었어요.

이 SFC가 가진 강령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은 많은 교회에서도 빌려다 쓰고 있지요.

우리의 생활원리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 중심, 2) 성경 중심, 3) 교회 중심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런 강령을 외우면서

1) 하나님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주권, 2) 성경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3) 신앙과 생활의 일치, 4) 자립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가르쳐 왔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씩 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이 SFC를 통하여 위대한 선배들이 걸어 갔던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잘 배워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나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